



2016
통권 제11호

행복한 도시 세종!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세종외화논식

Sejong City Council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인/사/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만물이 소생하는 희망의 계절 3월에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비회기 동안 시정 및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에 대한 관심과 지역구 활동 등 시민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여건과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늘 시민과 함께하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와 구제역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축산농가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결정을 비롯한 2016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그리고 각종 당면 조례안 등 주요 안건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새해 첫 시정질문에 쏟은 준비와 마음가짐도 남다르겠지만 그 동안 민생현장에서 수렴된 민의가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안건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충실한 답변과 함께 지적된 사항들을 발전적으로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가오는 4월 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거는 민의를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제도이므로 이번 선거를 통해 세종시의 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열망과 기대가 한 데 모여 새로운 세종의 시대를 향해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요동치는 선거정국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소신과 열정으로 시민의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면서 민생을 챙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2월에 보고한 금년도 주요시책과 사업들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봄철 산불예방과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도 우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상생과 소통,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더욱 바람직하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제 3월 하순이면 개나리와 진달래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가정에도 새봄의 활력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임상전**



Contents

- 03 세종의정 소식
 - 08 시정 질문
 - 13 5분 자유발언
 - 15 주요 안건 처리 현황
 - 22 상임위원회 활동
 - 29 언론에 비친 세종시의회
 - 33 세종시 가 볼만한 명소 소개
 - 35 건강상식
-

News

세종의정 소식



세종시의회 2016년도 시무식 개최

더욱더 연구하여 집행부에 대해 상호견제하는 한편,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회(의장 임상전)는 4일 오전 의회 3층 회의실에서 임상전 의장을 비롯한 윤형권·장승업 부의장 등 의회 의원과 사무처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시무식을 갖고 병신년 새해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를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임상전 의장은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3단계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조성 노력, 신설부처 미래부 이전 투쟁, 밤낮없는 예산 및 조례안 심의 등 전국 어느 의회보다도 역동성 넘치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특히, 바쁜 의정활동 연구모임 등 공부하는 연구의회, 대중교통개선·공공시설인수 특위활동 등 현장에 다가가는 현장의회의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자평하였다.

또한, 임 의장은 “왕성한 의정활동의 결과로 전국 최고의 입

법활동 실적이나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2위라는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격려하면서 앞으로도 전국 광역의회의 모범이 되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지난해만큼 금년 병신년에도 더 많이 공부하여 의원 역량을 제고해 집행부에 대해서 상호 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한층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도록 모두가 합심하고 노력하자”고 밝혔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임상전 의장은 “21만 세종시민에게 금년 한해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고, 더욱더 가까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의회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세종시의회,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쓴다.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에서는 고준일, 안찬영, 윤형권 의원과 관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1월 20일(수) 오전 10시 30분, 아름동복합커뮤니티센터 3층 대강당에서 ‘제1생활권(아름동) 적정규모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제1생활권 공동주택 입주에 진행되면서 사전 예측(0.316)보다 훨씬 높은 유발률(0.5~0.6)로 50학급 이상 과대학교가 생겨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고 우리 세종시의회의와 관계전문가, 교육청,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방안은 마련을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또한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학군재조정으로 쾌적한 학교 환경을 조성, 원거리 통학생 셔틀버스 운영을 확대, 공동학구 운영,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다양한 방안과 의견을 제시하였다. 토론회 좌장인 윤형권 부의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요소”라고 말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다양한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 검토 및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세종시가 진정한 명품 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정규모 학교시설 확보를 통해 균형있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의회차원에서 할수있는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형권 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형권 의원은 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아트홀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201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식에서 광역의원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

윤형권 의원은 지난 6·4지방선거에서 11개의 공약을 제시하였으며, ▲ 학교 앞 안전한 통학 시스템 설치 ▲ 학교주변 사각지대 고성능 CCTV 설치 등 4개의 공약을 이행하였으며, ▲ 스마트교육체험연구센터 설립 지원 ▲ 학교급식센터 설립 지원 ▲ 캠퍼스하이스쿨 설립 지원 ▲ 째지주차장, 가변 주차제로 주차난 해소 등 7개의 공약은 추진중이다.

특히, 윤형권 의원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캠퍼스하이스쿨 설립 지원' 공약은 약 4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세종시 6생활권 내 3~4개교를 묶어 2018년 상반기 개교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해 12월에 캠퍼스하이스쿨 설립 최종 용역보고를 마쳤다. 윤형권 의원은 "전국적으로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는 상

을 받아 매우 영광이다"며 "임기내에 현재 추진 중인 7개의 공약을 마무리해 세종시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명품도시로 건설될 수 있도록 더욱더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이며, 의정보고회 등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종시의회, 지역내 사회복지시설 위문 격려

설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의정활동 펼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진)는 2월 5일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지역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고 격려하였다. 연동면 베데스다의 집, 전동면 송정노인복지센터, 전의면 해뜨는 집을 각각 방문하여 위문품을 전달하는 한편, 장애인, 어르신들과 담소를 나누며 어려운 현실에도 이웃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시설 관계 종사자들에 대한 노고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 격려하였다.

윤형권 부의장 등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이 많으며 꾸준한 관심과 온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더불어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된 이웃을 보살피는 나눔 문화가 끊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 나눔의 문화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며,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속적인 위문·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사회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자치모델 연구모임 본격 가동

지난 3월 16일, 창립회의 개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 의원)에서는 지난 16일 오후 2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모임을 위한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서 고준일·정준이·윤형권 의원과, 남궁호(정책기획관), 김상봉(고려대 교수), 신상두(굿모닝충청) 등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안찬영 대표의원은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사무와 재원·인력의 획기적 지

방이양 추진이 절실하나 정부로부터 법과 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은 세종시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명품 세종시를 건설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금년에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가칭 청춘연구소 연구모임 등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의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타 지방의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시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열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후 시승행사 참여



세종시의회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이태환)는 지난 3월 25일에 세종시가 시범운영할 예정(28일부터)인 신교통 운영수단인 바이모달트램을 시승하는 행사를 가졌다.

이날 시승행사에 앞서 오전 10시에 열린 제4차 특위 회의에서는 (가칭) 세종도시교통공사 설립 추진현황과 시영버스 운영 준비 상황을 김현기 교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태환 특위 위원장은 “현 우리시 대중교통의 여러 복잡한 상황들을 면밀히 관리점검하고, 시민들이 편히 이용토록해야 할 것”이며, “누가봐도 명분있는 예산이 쓰이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태환 위원

장을 비롯한 시의원(세종시의회 의장 임상진)들은 바이모달트램 시승식후 시범운영기간 동안 주행성과 안정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특위는 지난 2015년도 7월, 이태환 위원장을 비롯한 고준일·김원식·서금택·이경대·장승업 의원 등 6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지난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16년도 6월 30일까지 활동계획을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세종시의희 (가칭) 청춘연구소 연구모임 첫 회의 개최

시와 관내대학 간 소통창구 마련

세종특별자치시의희 의원 (가칭) 청춘연구소 연구모임(대표 이태환 의원)에서는 지난 2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세종시 청년일자리 창출 및 문화사업 발굴을 위한 첫 회의를 갖고 연구모임의 명칭공모안과 향후 연중계획 수립 등에 대해 논의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태환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정하고 행정복지 이충열 위원장과 박영송 교육위원장을 포함한 고려대학교(세종)·홍익대학교(세종)·한국영상대학교 총학생회장을 회원으로 위촉하였다. 그리고 세종시 관계 공무원으로는 남궁호 정책기획관과 산업건설 전문위원 등이 참석하였다. 연구모임의 대표인 이태환 의원은 “오늘 연구모임을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깊고 연구모임을 통해서 시와 관내 대학간 소통의 창구역할을 할 수 있게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해마다 2,800여명의 관내 대학 졸업자들이 지역에 정착하지 못하고 잠시 세종시를 거쳐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지역에 있는 유능한 인재를 세종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나 사회 구조적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반조성에 회원님 모두가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개최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 방안 연구 첫삽

세종특별자치시의희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복렬 의원)”에서는 3월 31일(목) 오후 14시,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2층)에서 첫 회의를 개최하여 “양성이 평등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에는 김복렬 대표의원, 장승업·서극택 의원과 조혜영(세종시 여성가족과장), 오미란(지역고용정책연구원 전문위원), 성정숙(세종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박순영(한솔동 주민자치위원장, 간사) 등 7명의 회원이 참석했다. 김복렬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종시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역임 등 다년간에 걸친 여성단체 활동 경력을 바탕으로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 등 급격한 발전과 변화가 예측되는 전환기에 처한 세종시가 여성·남성 구별없이 살기좋은 도시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 끝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을 결성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연구모임 활동 일정 협의, 「기 지정된 타 시도 여성친화도시(66개소/2015년기준) 추진 성과」와 「세종시 여성친화정책 추진 현황」 등을 청취한 후 열린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정」을 우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2015년도에 지정된 타 시도 여성친화도시를 방문하여 벤치마킹을 통해 세종형 양성평등 정책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복렬 대표의원은 “향후 계획된 간담회, 토론회, 현장방문 등 10개월이라는 긴 여정으로 추진되는 본 연구의 성과를 위해 회원님들과 함께 열정을 다해 매진하고 집행부와 협력하여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Question

시정질문



제3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이경대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진)는 17일 10시 제3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경대 의원

**수도권 전철사업 관련 정부
계획과 세종시 대책 마련해야**
전동역 소정·전동역 정차를 위한
실시설계 반영 노력



이경대 의원은 “천안-청주공항 복선 전철사업은 당초 수도권 전철사업으로 알고 있었으나 예비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거치면서 천안-청주공항 전철사업으로 확정되어, 소정, 전동역에 열차가 정차 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으면 실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책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기본계획(안)을 보면 예비타당성 조사와는 다르게 정차역이 변경되어 ‘완행열차’와 ‘급행열차’로 구분되어 있으며 ‘급행열차’는 서창역에 정차하지 않는 것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시 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서창역은 경부선, 충북선의 분기역으로 시민들의 편리 도모와 수도권에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에 대한 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서금택 의원

**교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특단 대책마련 촉구**



서금택 의원은 “세종시의 관문인 조치원역 인근 교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2005년 9월 1일, 옛) 연기군으로부터 조합설립 인가를 받아서 지하층, 지상 20층 규모로 111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이 6층의 골조공사를 마치는 등 총 35%의 공정율을 보였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되고 있어 세계명품 세종시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서금택 의원은 ▲재건축 정비사업 관련 기본현황 및 소송일정 등 전반적인 추진현황 ▲재건축사업 관련 시에서 추진한 사항 ▲공공관리 차원에서 조합 운영전반 현장점검 계획 여부 ▲정밀 안전진단 등 위험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대책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공공관리제도’ 도입 의향 여부 ▲이해당사자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안찬영 의원

시 차원에서 사회교육망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 방안 마련



안찬영 의원은 “우리시는 지역사회의 교육에 대한 참여와 방과후 교육지원이 매우 시급한 문제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과도한 프로그램 수로 인해 학교 자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이며, 8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의 경우 그마저 프로그램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히면서, 이러한 “미취학 아동들을 선행학습이라는 사교육 현장에 그대로 내 보내는 것은 교육도시가 되어야 할 세종시와는 동떨어진 현실이다”고 말했다.

따라서 안찬영 의원은 “어린이 장난감 도서관”이나 “방과후 품앗이 돌봄사업”과 같은 예를 들면서 예정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며,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 및 조직으로 “복합 커뮤니티센터 활용”이 가장 효과적 대안 이라고 말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육성해 나간다면 보다 지속 가능한 마을 공동체 육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복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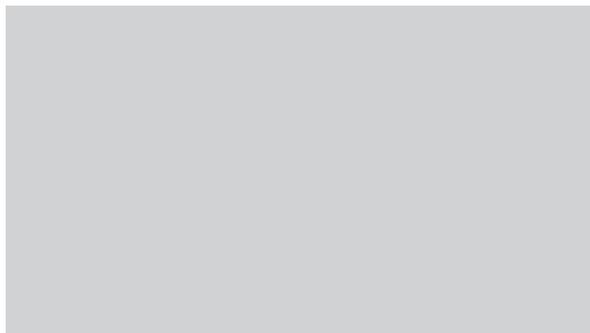
평균수명 연장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 대책 방안은 있는지



김복렬 의원은 우리나라도 노인인구가 매년 5만여 명씩 증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치매환자 수(경증환자 포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우리시의 경우 젊은층의 인구유입이 다른 여타 도시보다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치매 노인 환자는 인구 고령화와 함께 매년 늘어나는 추세로 특히, 독거노인 증가,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등의 이유로 그 어느 때 보다 공공부분의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또한 “치매 조기 진단부터 등외자 재기서비스 지원 및 시설 설치, 등급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 등 각 단계별 꼼꼼한 관리를 통해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정신적 부담을 최대한 감소해 줄 수 있는 정책 수립 및 이행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복렬 의원은 ▲치매환자 판정을 받은 등급자가 입소할 수 있는 장기요양 시설 수 및 우리시의 충족률 목표 ▲치매환자요양에 대한 종합대책 ▲취약계층 치매노인에 대한 무료 돌봄서비스 제공 및 치매지원센터 확충 방안 ▲지역내 치매지원센터, 요양시설, 병원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치매·요양 통합관리센터 향후 운영계획 등 치매노인환자에 대한 서비스 강화 방안에 대해 질문했다.



제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 “김정봉 의원 등 5명의 의원이 시정 현안에 대해 질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임상진)는 18일 10시 제36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질문을 하였다.

김정봉 의원

세종시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산업단지
추가 조성 필요



김정봉 의원은 세종시는 '대한민국의 중심, 실질적인 행정도시'의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조성 중인 도시첨단산업단지는 100%, 명학일반산업단지 98%, 세종미래산업단지 45%가 분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량기업 100개 유치 등 세종시의 균형발전과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현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면서, 향후, 양질의 기업유치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기반 창출로 이어져, 세종시의 정주여건을 강화하고 도시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기업 입주수와 개발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업단지확장 가능여부를 적극 검토”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2015년 4월 7월 ‘대전·세종시 상생협력 협약 체결’에 따른 상생산업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할 경우, 부강면 지역은 ‘과학벨트 거점지구’(대전 둔곡·신동지구)와 연계성 등 지리적 장점이 있으므로 두 도시가 산업, 경제 등 동반성장의 장점을 살려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충열 의원

세종시, 시민만족도 증진 도모
조직개편 필요성 제기



이충열 의원은 “예정지역과 읍면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우리시에 균형발전국을 설치하여 운영중에 있지만, 과연 균형발전을 위한 조직인지 그 정체가 불분명하며, 예를들면 ‘균형발전국 소속 청춘조치원과’의 경우 명칭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균형발전국과 전혀 업무가 무관한 ‘문화체육관광과’를 균형발전국 소속으로 배치한 것과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해야할 ‘로컬푸드’업무를 새로운 과를 신설하여 균형발전국으로 배치한 것은 업무연관성을 도외시한 대표적인 사례이며, ‘상하수도사업소’를 폐지하고 ‘정책기능은 상하수도과’를 신설하여 ‘시민안전국’으로 배치하고, ‘시설관리 업무는 시설관리사업소’배치로 인한 3개국(시민안전, 균형발전, 경제산업)에서 1개사업소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행정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충열 의원은 ▲그 동안 조직개편의 성과 ▲우리시 농축산업 관련부서의 조직이 전문성과 효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 발생에 대한 해소방안 여부 ▲우리시 부서 간 업무중복이나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장승업 의원

(주)한중 사용종료매립장 문제점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장승업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 133번지에 소재한 (주)한중 폐기물매립시설은 1999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주)한중에 허가하여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를 매립하고 향후 30년간 사후관리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폐업한 (주)한중에서 보증금만 납부하고 사후관리 이행이 없어 주민들은 매년 시에 대책 마련을 건의하는 등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농촌환경 보전을 위하여 “사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장승업 의원은 (주)한중 시설에 대한 그 동안 운영현황과 침출수 처리 등 관리 실태와 문제점 그리고 향후 관리방안과 인근 ‘연기면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침출수 처리 관리 과정과 지하수 오염 방지대책에 대한 방안을 촉구하였다.

김선무 의원

고북저수지 생태공원 사업 부진 이유와 향후 조성계획은 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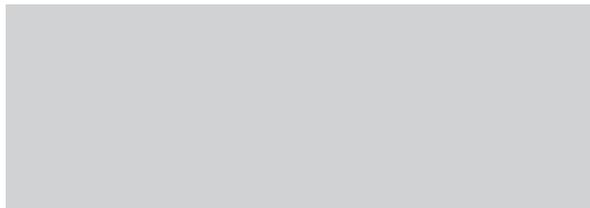
김선무 의원은 우리시 남부 신도시지역에는 세종호수공원이 조성되어 각종 행사뿐만 아니라 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각종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시 랜드마크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호수공원은 인공호수로서 자연 경관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게 현실이다. 따라서 고북시립공원의 훌륭한 자연 경관을 잘 살려, “남부권에는 세종호수공원 북부권에는 자연경관이 좋은 고북시립공원으로 조성”하여 상호 매칭될 수 있도록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고북시립공원은 2002년 생태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시작으로 2008년부터 갈대습지원, 수변관찰로 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8년이란 시간이 지났어도 사업이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이고 매년 7~8억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전혀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선무 의원은 ‘고북시립공원’이야말로 세종시 천혜의 자산이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감한 예산을 투입하여 북부권 관광명소로 개발한다면 지역상권은 물론 농산물 직거래 등 지역발전의 견인차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고북시립공원이 생태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태환 의원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철도 대기환경 관리 대책 마련해야



이태환 의원은 현재 “조치원(침산리~교리) 지하철도의 대기환경 기준, 시설물 및 도로관리 상태, 차량통행 및 보행로 유지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이며, 시 차원에서의 효율적인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태환 의원은 ▲지하차도의 관리부서 ▲지하차도의 배기가스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 측정여부 ▲지하차도 내에서 검출된 오염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질문했다.



5 Minutes Speech

5분 자유발언



서금택
의원



(제3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연동면 응암리 폐기물 매립장 사후관리 방안

서금택 의원은 연동면 응암리에 위치한 (주)한중의 폐기물 매립 사후관리 대책마련을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촉구했다.

이곳은 지난 1999년 11월 23일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매립용량 15만톤 규모의 매립장으로 허가를 받아 12,8000㎡를 매립하여 사용하다가 지난 2002년 2월 7일 사용 종료된 시설로 매립된 폐기물의 성상은 지정폐기물 33%, 일반폐기물 67%로, 지금까지 일부 침출수에 대해서 관리청과 세종시에서 이행보증금 및 자체사업비로 일부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도 약 3만5천여톤의 침출수를 더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관리청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세종시에서 공동관리하여 줄 것을 회신하는 등 사후관리에 대한 책임을 세종시로 떠넘기려하고 있다며, 우리시는 앞으로 계속 발생하는 침출수 3만5000여의 위탁처리비용 약70 억원은 인·허가 관리청인 환경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처리 비용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명확한 답변을 미루는 등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준이
의원



(제36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사회적 기회균등과 결과의 평등을 위한 제언

정준이 의원은 “사회적 기회균등 보장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도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삶의 터전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아이콘,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계층·계급을 떠나 함께 어우러져 떳떳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정준이 의원은 ▲행정·의정에 대한 견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설립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정준이 의원은 “본 프로젝트는 각각의 사회취약계층 관련 정책 실행기관의 문제점 및 미흡한 기능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장기적으로 예산의 중복·낭비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며, 더불어 “젊은 세종시와 고령화된 세종시”, “가난의 대물림, 계층간·계급간 갈등”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미래 희망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Main Agenda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35회 임시회

2월 15일부터 2월 24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5회 임시회에서는 서금택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집행부로부터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였으며,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선임안 등 4건을 처리하고 폐회하였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현안 해결의 중심축으로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할 계획이다.

[주요 처리안건]

01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박영송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02 세종특별자치시 택시운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이태환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으로써, 택시 운송종사자의 복리증진 및 택시 서비스 질의 향상을 통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0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단지의 감사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주택법」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감사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감사제외 대상, 감사반의 구성·운영,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4 세종특별자치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행정수도인 세종시 지위에 걸맞은 전국 제일의 무궁화 도시를 조성하고자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무궁화의 보급·확산을 통한 시민의 애국심을 고양하고 무궁화 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함.

05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원안가결)

제안자 : 교육감

주요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세종특별자치시 모든 지역)의 학교군을 설정하고자 함.



제35회 임시회

0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 아름동 관할(아름동, 종촌동, 고운동) 지역의 급증하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아름동을 분리하여 종촌동을 신설하고, 한솔·도담동의 공동주택 준공에 따른 입주에 대비하여 통·반을 정비함으로써 일선 행정동·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는 것임.

07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토착기업에 대한 증설 투자를 유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외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3년 이상 영위한 토착기업이 기존사업장에 증설 투자를 하는 경우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 기업유치와 규제제로지역 운영 조례」에서 정한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 조례에 투자유치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투자유치의 지원체제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08 세종특별자치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전시시설 출입구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여 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려는 것임.

09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법률 제12698호, 2014. 5. 28. 공포, 2015. 7. 1. 시행)됨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맞추어 제명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여성발전기금”을 상위법령에 맞게 “양성평등기금”으로 변경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는 대신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임.

1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박영송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교육기본법」제23조,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교육 정보화 지원으로 학생들 간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정보화 역기능인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관리 및 사이버 음란물 차단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사항 등을 정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제35회 임시회

[그 밖의 처리안건]

조례안 (16건)

- 시장 제출 (10건)

- 세종특별자치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 및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보 의무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의원발의 (6건)

-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태환 의원외 5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준이 의원외 4명](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식 의원외 5명](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경대 의원외 7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영송 의원외 6명](원안가결)

- 기타안건 (3건)

- 제3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 [의장](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고준일 의원외 7명](원안가결)



제36회 임시회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열린 제36회 임시회에서는 정준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였고,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과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안 등 20건과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기타 안건 6건을 처리하였다. 특히, 제2·3차 본회의에서는 시민의 편의와 직결된 사항에 대하여 김정봉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각각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직접적으로 시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였다.

[주요 처리안건]

0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학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제정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의용소방대장의 장학금 추천권한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2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의 육성에 기여한 주민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공동체 형성과 확산을 유도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구성을 변경하여 탄력적 운영 및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03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고준일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각종 재난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장례지원 근거가 없어, 관례적으로 소방서葬으로 집행하는 등 그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순직한 소방공무원을 애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자 함.

04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김원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근거로 개발행위허가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사항으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서 삭제하고,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 「산지관리법」과 동일하게 경사도 산정방법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05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서금택 의원 대표발의

주요내용 : 「지방자치법」과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

제36회 임시회

의회로 하여금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규정 있음으로 이에, 관련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연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06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사업범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7 세종특별자치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이내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참전유공자 다수가 고령이며 빈곤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주민등록법」상 만 8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 한정하여 만 80세가 도래한 달부터 월 5만원의 참전명예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려는 것임.

08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창업지원 및 기업관련 단체 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혼동 가능한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내용의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09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등에 사용료·주차료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세종특별자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같은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면제하는 경우로서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제공할 수 없을 때 납부하여야 할 주차장 설치비용을 마련하려는 것임.

10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제안자 : 세종시장

주요내용 :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된 사항에 맞추어 시각장애등급 4급 장애인의 소유자동차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간을 2018년 말까지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의 신설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임.





제36회 임시회

[그 밖의 처리안건]

조례안 (10건)

- 시장 제 출(3건)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교육감 제출 (2건)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 의원발의 (5건)

-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 [이태환 의원외 6명](수정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준일 의원외 3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정봉 의원외 5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정봉 의원외 5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원식 의원의 4명](원안가결)

기타안건 (6건)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준일 의원외 3명](원안가결)
- 세종특별자치시시장과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 [이경대 의원외 6명](원안가결)
- 연서119안전센터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견 청취 [시장](원안가결)
- 제3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원안가결)
- 2016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의장](원안가결)
-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원안가결)



시민 곁에서, 현장 속에서, 정의 편에서
늘 함께하는 세종시의회



Standing committee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위원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



서금택 위원장



김복렬 부위원장



고준일 위원



김원식 위원



김정봉 위원



장승업 위원



정준이 위원

-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의회운영위원회는 2월 22일 회의를 개회하여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청취하였고, 「세종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의하여 원안결의하였다.

- 제3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의회운영위원회는 3월 24일 회의를 개회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5건을 심의하여 4건은 원안, 1건은 수정 결의하였다.



행정복지 위원회



이충열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박영송 위원



서금택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 제35회 임시회 기간중인 2월 16일부터 2월 17일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았으며, 2월 18일은 「세종특별자치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가족분노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을 하였으며, 그 중 「세종특별자치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였다.
- 제36회 임시회 기간중 3월 22일 행정복지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의 의결하였다.



산업건설 위원회



고준일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김정봉 위원



안찬영 위원



이경대 위원



이태환 위원

- **제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월 25일부터 2월 3일까지 8박 10일간 북유럽 4개국(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다양한 친환경 도시재생·주거단지 및 지방의회를 방문하여 선진국가의 도시재생, 친환경 생태도시, 과학산업단지, 쓰레기소각장, 의회운영 등 미래발전 지향적 도시건설정책 및 제도 등을 벤치마킹하여 세종시에 적합한 균형적 도시성장 정책 적용 등 의정활동의 역량 강화 및 행정발전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무국외활동을 실시하였다.
-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인 2월 16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월 17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청취」를 청취하였으며, 2월 18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12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은 보류하였다.
- **제36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2일에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7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수정가결 하였으며, 「전동 시민스포츠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건은 보류하였다.



교육 위원회



박영송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



김선무 위원



안찬영 위원



윤형권 위원



이경대 위원



이충열 위원

- 제35회 임시회 기간 중 2월 22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등 조례안 2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등 의안 1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3건을 의결하였다.
- 제36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통학차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조례안 2건을 심의하여 원안가결 2건을 의결하였다.



공공시설물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안찬영 위원장



정준이 부위원장



김복렬 위원



김정봉 위원



윤형권 위원



장승업 위원

- 제34회 제2차 정례회 폐회 중 1월 22일 제7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운영계획을 채택하고, 2016년도 인수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U-city 1단계 2차사업 인수 및 운영 계획보고를 청취하였다. 이어서 세종소방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청주 연결도로 등 3개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시설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 제35회 임시회 폐회 중 3월 2일 제8차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관련 업무보고 청취 후 2016년도 공공시설물 인수결정을 심의하여 세종소방서, 대덕테크노밸리 연결도로 등 2건에 대해 인수결정에 동의를 하였다. 이어서 가람동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 및 크린에너지A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로 하여금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다.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



이태환 위원장



김원식 부위원장



이경대 위원



고준일 위원



장승업 위원



서금택 위원

- 제36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5일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는 제4차 2016년도 첫 회의를 개회하여 집행부로부터 (가칭) 세종교통공사 설립추진 현황과 시영버스 운영준비 상황 등 대중교통 관련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청취 하였고, 특별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전 의원과 직원 등 25인이 참여한 가운데 세종시가 시범운영 중인 신교통 운영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시승하여 도로주행성과 안전성을 점검하였다.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6

한국일보

2016년 1월 20일

세종 1생활권 과대학교 해소 대책은 시의회, 적정 규모 학교 조성 방안 토론회



세종시의회는 20일 거대학급이 생기고 있는 세종시 1생활권의 적정 규모 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20일 아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대강당에서 '제1생활권(아람동) 적정 규모학교 조성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날 토론회에는 시의회 고준일·안찬영 의원과 윤형권 부의장,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1생활권의 과대학교 문제 해결 방안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열렸다. 1생활권에선 사전 예측(0.316)보다 훨씬 높은 학생유발률(0.5~0.6)로 50학급 이상의 과대 학교가 생기고 있다.

참석자들은 학군 재조정을 통한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 과 원거리 통학생 셔틀버스 운행 확대 의견을 내놨다. 공동학구 운영과 교육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시행 등 방안도 제시했다. 토론회 좌장인 윤 부의장은 "교육은 우리 사회발전의 원동력이며 우리 세종시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소"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방안을 적극 검토해 추진되도록 하는 등 의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동양일보

2016년 1월 4일

세종시의회 정준이 의원 대한민국 사회 환경봉사대상

세종시의회 정준이(사진) 의원이 8회 대한민국 사회 환경봉사대상 지방자치 의정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정 의원은 역사적인 세종시 탄생의 주역으로 연기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재직 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삭발로 항거, 세종시 원안을 지켜내는 데 일조했다. 2014년 매주 금요일 급식과 배달 봉사활동을 전개하는 등 세종YMCA 후원자로 활발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시의회 환경교육연구모임 을 결성, 대표의원을 맡아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세계적 친환경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법적 제도적 방향성 모색에 나서

는 등 환경운동 중요성을 앞장서고 있다. 정준이 의원은 수상을 하게 돼 무척이나 감사하고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워지는 책임감을 느낀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세종 일요>

중부매일

2016년 1월 4일

‘신·구도심 균형발전’ 최우선 과제

윤정권 균형발전연구단의 대표 인터뷰

회원 총 7명 활동-상생발전 방안 모색
조직원역사 복원-연서면 상가거리 중점 추진

●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연구단은 2015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연구단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연서면 상가거리 복원과 직원역사 복원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연구단이 2015년 11월 26일 출범했다. 연구단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 연구단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연서면 상가거리 복원과 직원역사 복원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연구단은 ‘신·구도심 균형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상생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연서면 상가거리 복원과 직원역사 복원을 중점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금강일보

2016년 1월 26일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현장방문.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위 현장방문

건설 현황 청취·시설물 점검 나서

세종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2일부터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특위 소속 위원들과 세종시 소관 1차·2차와 1차 단계가 완료된 가운데 제5차 회의별 개최, 오후 2시부터 세종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황주 연결도로 등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 1차·2차와 1차 단계가 완료된 가운데 제5차 회의별 개최, 오후 2시부터 세종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황주 연결도로 등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세종시 1차·2차와 1차 단계가 완료된 가운데 제5차 회의별 개최, 오후 2시부터 세종소방서,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황주 연결도로 등 3곳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2016년 2월 26일 세종특별자치시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세종-청주 간 연결도로 건설을 위한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대전투데이

2016년 3월 6일

세종시의회, “세종시, 공공시설물 하자없는 완벽한 인수여기 보여야”
이정복 conk-lee@hanmail.net



[대전투데이 세종=이정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시설특위)는 2일 시의회 3층 소회의실에서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종료 후에는 가람동에 위치한 수질복원센터(크린에너지)에 대한 현장방문도 이어졌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공공시설특위 위원들은 조수장 균형발전국장으로부터 시설물 이관에 따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질의답변 시간에 2016년 인수해야 할 여러 시설물에서 생활권 인수는 결정해야 할 시설들이 많은 실정으로 생활권 내 전체 시설을 한번에 인수하기 보다는 도로, 공원 등 세부시설별로 분리하여 인수 받아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회의석상에서 안찬영 위원장은 “2생활권에 대해 1차부터 인수관련 요청이 들어온 것과 관련하여 인수대상 시설들이 광범위하므로 사실상 공공시설특위에서 모든 시설물을 점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집행부에서는 시간을 갖고 면밀한 사전점검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문한 가람동 수질복원센터에서는 소장으로부터 시설안내와 업무현황을 청취한 후 수거차량 출입구, 음식물 투입호파와 욕상 배기구를 둘러보았다.

여기에서는 ▲관리용 욕상의 배기구 대기측정기구 설치 ▲차량 출입구 음향시설 및 차폐시설 보강 등 악취 유출 방지대책 마련 ▲악취저감을 위한 미생물 제거장치 및 음식물쓰레기 소각방안 검토 주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함에 역설하여 악취저감시설 및 음식물쓰레기 보강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에 비친 세종시 의회

Sejong City Council Newspaper 2016

충청타임즈

2016년 3월 16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 자치모델 연구모임' 본격 가동

- 16일, 창립회의 개최 [세종/ctn]정민준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 의원)에서는 16일 오후 2시,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모임을 위한 창립회의를 개최하여 향후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이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고준일·정준아·윤형권 의원과, 남궁호(정책기획관), 김상봉(고려대 교수), 신상두(국모성충청) 등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는 계획이다.

안찬영 대표의원은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사무와 재원?인력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이 절실하나 정부로부터 법과 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은 세종시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명품 세종시를 건설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금년에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가정 청소년연구소 연구모임 등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그 어느해 보다도 의원들이 창의적으로 연구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타 지방의회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민준 기자 jil3679@daum.net

충청신문

2016년 3월 17일

세종시의회 '세종시 자치모델 연구모임' 16일 첫 모임

정완영 기자 waneyoung@dailycn.net



▲ 16일 세종시의회가 7명의 의원으로 '세종시 자치모델 연구모임' 창립총회를 열고 있다.

[충청신문=세종] 정완영 기자 =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대표 안찬영 의원)이 16일 오후 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층 회의실에서 연구모임을 위한 창립회의를 열고 활동방향을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세종시의회 안찬영 의원을 대표의원으로서 고준일·정준아·윤형권 의원과, 남궁호(정책기획관), 김상봉(고려대 교수), 신상두(국모성충청) 등 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활동한다.

안찬영 대표의원은 "2012년 7월 1일 출범한 세종특별자치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는 단층제 행정체제로 기초와 광역기능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조직과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국가사무와 재원?인력의 획기적 지방이양 추진이 절실하나 정부로부터 법과 제도 등의 규제를 받고 있어 어려움이 많다" 며 이번 "연구모임을 통해 지역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 고 당부했다.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은 세종시에 적합한 자치모델을 구축하고, 명품 세종시를 건설함으로써 성공적인 자치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올해 세종시 지방자치모델 연구모임,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연구모임, 가정 청소년연구소 연구모임 등 3개의 연구모임을 구성해 활동하기로 했다.

중도일보

2016년 3월 17일

“사회적 기회균등위한 전략기구 설립해야”

시·도 의회 5분 자유발언

정준이 시의원 시정 정책대안 제시
옴부즈맨 제도 도입 등 3가지 제안



문,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계층·계급을 떠나 함께 어우러져 뜻뜻한 삶을 향유할 수 있는 타탄을 마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정 의원은 ▲행정·의정에 대한 경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 설립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세종시의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해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기구' 설립 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종시의회는 1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준이(사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며 시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정 의원은 "사회적 기회균등 보장과 공평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꿈의 도시, 사회구성원의 보편적 삶의 타탄으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아이

를 위해 정 의원은 ▲행정·의정에 대한 경제 및 감시를 위한 옴부즈맨 제도 도입 ▲세종시의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국제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인간중심적인 문화·교육복지 도시로의 성장을 위한 '세종시 브랜드 이미지 전략 기구' 설립 ▲함께 어울려 행복한 세상, 사람내음 가득한 '다원 삶터' 조성 등 3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사회취약계층과 관련된 정책 실행기관의 문제점 및 미흡한 기능의 보완을 통해 정책의 일관성은 물론 예산의 증축·낭비까지 미연에 방지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세종=박병주 기자

세종호수공원

국내최대의 인공호수로 크기가 축구장의 62배, 평균 수심이 3미터이다. 세종호수공원과 어울리는 국립세종도서관, 그리고 배경으로 펼쳐지는 전월산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이다. 세종호수공원에는 다양한 축제의 공간인 축제섬, 최고의 수상 무대가 될 무대섬, 도심속에서 해변을 연상할 수 있는 물놀이섬, 다양한 수생식물과 생태습지가 있는 물꽃섬과 습지섬 등 5개의 인공섬이 조성되어 있다. 또한 호수 주변에 조성된 산책로와 자전거도로는 세종특별자치시민들이 여유로운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16(어진동)

전화번호 044-301-3631~3636

홈페이지 <http://lake.sejong.go.kr>



방축천 수변공원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일원 **전화번호** 치수방재과 044-300-5331

도심 속 테마하천공원으로 방축천 10교~16교 둔치 사이로 5가지 테마로 이뤄져 있다. 수변식물테마공원, 세종광장, 자연생태학습, 친수문화, 친수활동구간으로 세종특별자치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새로운 세종특별자치시의 명소가 되어가고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명소 방축천을 재미있게 즐기기 원하시면 본 게시물을 즐겨찾기 해두시고 방문 전 시설물 가동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축천 주요 시설물 가동시간은 예고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우주측지관측센터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초정밀 우주측지기술을 구축·운영하고 있는 관측센터로 국내 최대의 직경 22m, 높이 28m의 안테나(전파망원경)와 홍보관, 관측동 및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준성(Quasar : 광학적으로 보통 별과 구별이 되지 않는 천체)에서 발생하는 전파를 안테나로 수신해 GPS보다 더 정확한 좌표값을 제공하는 첨단 시스템(VLBI)을 갖추고 있다. 이 시스템은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 3번째로 구축되었으며, 일반인에게 생소한 우주측지기술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쉽게 접할 수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 대표 랜드마크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 월산공단로 276-71(세종리 산182)
전화번호 044-860-4000 **홈페이지** <http://vlbi.ngii.go.kr>



정부청사옥상정원



세종정부청사는 전체 길이가 무려 3.5km로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정원'으로 단일 공공청사 중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길어 기네스북에도 오를 예정이다. 녹지 면적만 6만445㎡(1만8천317평)인 정원 녹지에는 각종 나무와 풀 130만여 그루가 심어져 있다. 세종청사관리소에서는 2014년 하반기 부터 시민들에게 옥상공원을 개방하고 있다.

소재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전화번호 044-200-1123
홈페이지 <http://www.chungsa.go.kr>

당뇨병 환자가 정말 많아졌다.

집안일 때문에 친척들이 모여 이야기 하다 보면 우연히 당뇨병이 화제에 오를 때가 많다.

집안에 혈당측정기가 있으면 쪽 둘러 앉아 일제히 혈당을 측정해보면 자신도 몰랐던 당뇨병을 발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우리 나라 당뇨병 환자의 약 60%는 자신이 당뇨병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지낸다. 여기에 당뇨병에 대한 잘못된 의학상식도 당뇨병 치료에 걸림돌이 되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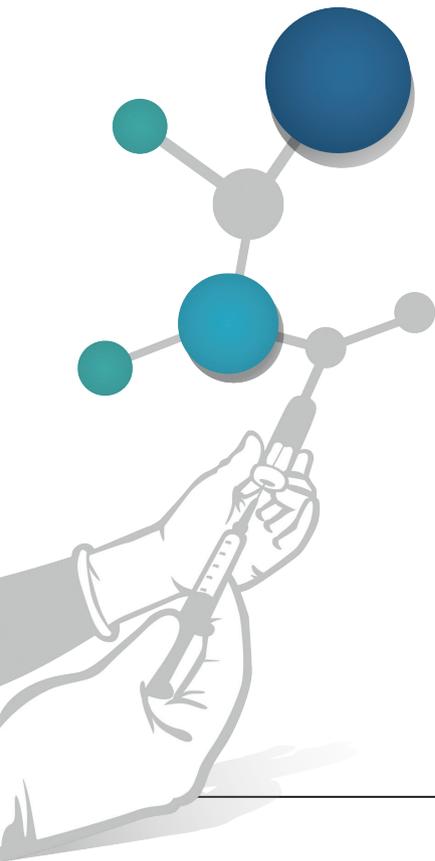
잘못 알려진 당뇨상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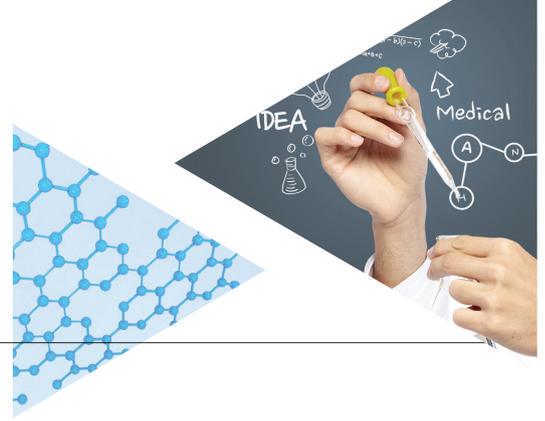
증세가 없으면 치료할 필요 없다?

대부분 당뇨병 환자는 증세가 없다. 흔히 당뇨병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물 많이 마시고, 음식 많이 섭취하고, 소변량이 많아지는 등의 증세는 당뇨병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에 나타난다. 따라서 본인이 괴롭지 않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눈치채지 못하게 야금야금 파고든 후에 본색을 드러낸다. 이 때는 이미 합병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의 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증세가 없어도 당뇨병은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단방약(單方藥)을 찾는다?

흔히 당뇨병에 걸리면 이를 어떻게 해서든지 완전히 없애 버리려고 한다. 또 한 번 또는 몇 달의 치료약으로 완치할 수 있다는 광고가 많은 사람들을 유혹한다. 당뇨병을 한 번 치료로 완치하는 단방약은 없다.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은 없애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피 속에 포도당이 없으면 저혈당으로 사람이 죽는다.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 너무 많아서 넘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적절한 수준으로 조절하면서 사는 것이 당뇨병의 치료이다. 마치 물이 없으면 가뭄으로 생명체가 없어지고, 너무 많으면 홍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이치와 같다.





한번 먹으면 평생 약을 못 끊는다?

환자들에게 치료약 복용을 권하다 보면 한사코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일단 치료를 시작하면 약을 끊을 수 없고 약이 독하기 때문에 몸에 생기는 부작용을 우려해서이다. 일단 약을 복용하면 정말 끊을 수 없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혈당이 높으면 반드시 치료해야 한다. 혈당을 정상으로 유지시키면 당뇨 치료약은 끊어도 계속 정상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그러나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혈당이 정상으로 떨어질 기회가 줄어들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 치료약을 사용해야 할 때는 약의 용량은 점점 늘어나게 된다. 물론 약을 복용해야 되는 시기는 전문의가 결정하는 것이며 상당한 수의 환자들은 약을 끊고서도 정상 혈당을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약의 부작용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가? 약 부작용이 1이라면, 혈당 조절로 얻는 이득은 10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완치는 불가능하다?

완치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의 염원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발전이 있었다. 당뇨병 치료의 최근 뉴스를 접하다 보면 수년 내에 당뇨병이 완치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으리라 기대해보기도 한다. 그렇다. 난치성 당뇨병 환자의 치료에 큰 서광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당뇨병이 왜 생기는 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당뇨병은 생활습관 병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부적절한 식사, 움직이지 않는 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다. 생활습관의 개선 없이는 어떠한 첨단 치료법도 소용이 없다. 완치될 수 있다는 첨단 치료법이 언제쯤 현실화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신의 잘못된 생활 습관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 어떠한 첨단 치료법 보다 더 당뇨병 치료에 많은 이득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다.

병원만 오면 혈압이 올라간다?

당뇨병 환자에게서 고혈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다. 당뇨병과 고혈압이 같은 원인에서 출발하는 경우도 있고, 당뇨병의 결과로 생길 수도 있다. 원인이든 간에 당뇨병에 동반된 고혈압은 당뇨병 합병증을 악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이다. 고혈압 치료를 권하면 상당히 많은 환자들은 '집에서는 정상인데 병원에만 오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다, 이 정도 혈압이면 괜찮지 않나요? 혈압약도 한 번 먹으면 일생 끊지 못한다면서요' 등의 이유를 든다. 정상인의 혈압은 안정된 상태에서 높은 혈압 100~110 mmHg이고 낮은 혈압 70~80 mmHg를 유지한다. 따라서 이 이상이 되면 치료해야 한다. 당뇨병에 고혈압이 동반된 경우에는 혈압 조절을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140/90 mmHg이 넘으면 고혈압이라고 하지만, 당뇨병이 있을 때는 130/85 mmHg가 넘으면 고혈압으로 간주하고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다.

운동은 체육관에서 해야 한다?

운동은 모든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생활습관이다. 당뇨병에서도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운동이라고 하여 특별한 계기를 만들 필요는 없다. 에어로빅, 피트니스 클럽, 운동 동호회 등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기회가 있으면 참여하여 정기적으로 운동할 수 있다면 매우 좋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운동을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렇지 않다. 운동이라는 표현보다 '움직이는 생활'이라는 표현이 더욱 적절할 것 같다. 가능하면 많이 움직이고 집에 있는 자동화 기계는 치운 후 만보기를 차고 다니면서 매일 걷는 양을 점검하는 등 움직이는 생활을 습관화 한다. 이러한 개념이 진정한 의미의 운동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 의회소식지인 「세중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옥고(玉稿)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이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의회에 바라는 글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증명사진 및 관련사진, 주소, 전화번호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원고분량 : 200자 원고지 10매 내외



세중의회소식 2016
Sejong City Council 통권 제11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공보담당)
발행일 2016년 4월 통권 제11호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군청로 87-16
전화 044-300-7242
홈페이지 <http://www.council.sejong.go.kr>

시민과 함께 공감하는 열린의회!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